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13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부활주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5. 성경통독: 제9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19일) 진행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기도. 4/3(수) 8시 Zoom 기도회(에베소서 강해)
7. 감사: 맛있는 점심 준비하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교제합니다.
8.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3/25-30) 동안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9. **차세대 사역:** 차세대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중보기도를 바랍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 1,034.00)

- 십 일 조:** 송희복 송순란, 이진원 유금자,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감 사:** 강익승 한동주, 김민택 김윤정, 송희복 송순란, 이경원,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박병기, 이경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선교헌금(7Days 감사):** 김민택 김윤정,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 별(선교헌금):

2024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혹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5. 과테말라 (이누가) 병원 치료사역 및 현지인 전도

제16권 13호 2024년 3월 31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 등 대 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부활주일에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조병기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도자
- 찬 양 Anthem 찬양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행 2:29-32, 43-47 다 같이
- 설 교 Sermon **부활의 증거** 김반석목사
- 봉헌송 Hymn 516장 **옴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 같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요 기도회

밤 8:00 (ZOOM)

새벽 기도회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조병기 권사	김반석 목사	다 같이	조민연 권사
다음주	이진원 권사	조병우 목사	유금자 권사	박종님 전도사



“비아 돌로로사’, 새로운 생명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던 예루살렘의 거리는 오늘날 ‘슬픔의 길’이라는 뜻으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단순히 슬픔의 길보다 더 큰 의미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기꺼이 걸어가신 그 고통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계신 데로 나아가게 해주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히 10:20).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히 10:1, 4). 예수님이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환영 받고 사랑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The road Jesus traveled to the cross through the streets of Jerusalem is known today as the Via Dolorosa, the way of sorrows. But the writer of Hebrews viewed the path Jesus took as more than just a path of sorrows. The way of suffering that Jesus willingly walked to Golgotha made a “new and living way” into the presence of God for us. For centuries the Jewish people had sought to come into God’s presence through animal sacrifices and by seeking to keep the law. But the law was “only a shadow of the good things that are coming,” for “it is impossible for the blood of bulls and goats to take away sins.” Jesus’s journey down the Via Dolorosa led to His death and resurrection. Because of His sacrifice, we can be made holy when we trust in Him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s. Even though we are not able to keep the law perfectly, we can draw near to God without fear, fully confident that we are welcomed and loved.